

# 숲 정 이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요한2,17).

## 사순 제3주일

제1독서: 출애20,1-17  
제2독서: 1고린1,22-25  
복음: 요한2,13-25

## 강론

## 소리

### “서울 예수”

정태현 신부 / 성서위원회

장안에 '몬트리올 예수'라는 영화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마당극으로 새롭게 엮는 배우들의 이야기인데, 한 대목이 인상 깊다. 이 마당극에서 예수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동료 여배우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맥주회사 광고 모델로 출연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장면이다. 동료 여배우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다른 후보자들과 더불어 광고 모델에 뽑히기 위해 연기와 몸매를 보여줄 때, 주인공은 그녀를 착취하고 유린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감지한다. 촬영기와 음향기기를 부수고 심사위원들의 책상을 뒤엎은 죄로 그는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변호사의 변론도 거부한 채 한 마디의 항변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다.

이 대목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복음의 예수님은 부패한 유대교의 심장부를 강타하셨다. 그분이 만난 사람들의 절박한 문제들이 결국 예루살렘 종교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의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꿰뚫어보신 것이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증명해보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당신 몸을 상징하는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대답하셨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분의 십자가상 죽음과 사흘 후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성전 정화 이야기는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 말고 복음서의 어느 구절에서도 그분의 분노와 난폭한(?) 행동이 이처럼 적나라하게 묘사된 대목을 발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평소에 마주친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개별적 고통들이 예루살렘 종교지도자들의 위선과 무관심과 불의한 착취와 부패에 직결되어 있다고 보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아성인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를 과감히 시도하셨다.

우리 사회의 부패된 모습이 숨가쁘게 공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환경오염과 더불어 사회오염이 한계수치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사업도 한창 성업중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가고 그들을 지도하겠다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성소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들이 몸 담고 있는 사회가 자체의 정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 교회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개인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구원에 눈을 돌리는 서울 예수들을 많이 배출시키는 일이다.

### “도덕성이란?”

오늘날처럼 도덕성이라는 말이 내세워진 적은 일찌기 없었던 것 같다. 8·15해방 이후 반세기에 걸쳐서 그렇다. 하다면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그런대로 건전했기 때문이며 유독 오늘날에 와서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인가? 아니다. 처음부터 비리로 시작되어 쌓이고 쌓인 것이 이제는 타락 이하의 파멸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어쨌든 한참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무엇이 도덕성인가? 이렇게 묻는 내 자신이 오래 떳떳하지 못한 발자취를 남겼다면 도덕적 비판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기도 하다. 이처럼 도덕성은 양심과 오랜 생활의 문제다. 곧 바탕과 뿌리의 문제다. 도덕성의 문제인 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 그가 걸어온 발자취라 하겠다. 이제껏 한번 손해볼 줄 모르고 약게만 살아온 사람이 도덕군자처럼 새삼스레 가다듬는 목소리는 듣기에도 민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오래 잘못 길들여진 경쟁의 칼부림과 황금만능의 속임질에 문드러져버린 도덕성이 무슨 대회나 토론회 정도로 회복되리라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다. '범죄와의 전쟁'이 범죄자끼리의 또다른 전쟁이 되듯이 그렇다. 요즘 연이어서 통겨져나오는 굵직굵직한 '건수' 앞에 정작 검은 큰 손일수록 주먹만 부르대기가 일쑤다.

뒤집혀 있는 도덕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근본적인 대수술부터 앞서야 할 것이다. 바탕과 뿌리부터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 살아나는 저마다의 도덕성을 진작로 닦아 빛내는 길은 오직 하늘과 저만이 아는 그런 보람(선행)을 쌓아나가는 데 있으리라고 믿는다. ☞

### 숲정이 산책



사순절에 만난 사람들 ②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건강한 몸으로 별 어려움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 속에서는 보다 많이 별이 남보다 낮게 살아보겠다는 것이 보통 가장들의 일반적인 욕망이다. 의식주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누구에게 감사해 한 다거나 또 아쉬운 청을 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것인가.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은 일로 믿어마지않던 직장과 재산,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의 균형이 깨지는 불행을 당하게 되면 친 하던 벗과 이웃마저 잃고 외로움과 고통의 늪 속에 빠져 허위적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차라리 죽음보다 괴로운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은 계시의 자 비이고 이때부터 고통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기 마련이다.

파산과 외병으로 고통중에 있다가 교회의 인도로 주 님을 영접하고 건강을 되찾아가며 희망 속에 살고 있는 강대인 베드로 형제(53세, 전주시 동산동 농원부락)의 삶도 이같은 사례의 하나다.

대학을 마친 뒤 1968년 기사산업에 입사해 이리 영 업소장으로 승진해 있던 베드로 형제는 76년 빛보증을 서켰던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7천만원의 채무자가 돼 2년 뒤인 78년 직장은 물론 집까지 잃고 말았다. 부인과 나이 어린 3남매를 식월세방에 남 겨두고 서울과 전주 등지에서 양주대리점과 음료수 도 매점 종업원으로 전전하며 어려운 가계를 꾸려가던 중 81년 부인(정삼엽 씨, 51세)이 파산으로 말미암은 충 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해 집안이 더욱 어려워진 데다 86년에는 빛문제로 구속되는 불행을 당하게 됐다. 수감생활 4개월 만인 87년 3월 중풍으로 쓰러져 병보석 으로 풀려났으나 의지할 데가 없어 농원마을 누이집 행 랑채로 이사해왔다.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의 몸이 된 채 이렇다 할 치료도 받지 못하고 몸져 누워 절망의 구렁 속에 빠져 있던 지난해 4월, 이같은 사정을 알게 된 동 산동 본당 빈첸시오회원들의 방문을 받았다. 거의 매주 이다시피 위로 방문을 해준 이들의 인도로 지난해 7월 첫주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던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 예비신자 교리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베드로 형제의 건 강은 날로 좋아지게 됐다. “하느님을 모시게 되자 세상이 갑자기 달라졌지요. 처음에는 믿음 때문이라기보다 빈 첸시오회원님들의 정성 가득한 도움으로 희망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의욕을 느끼게 됐습니다.” 첫번째 교회 나들이 때는 교우들의 부축으로 1킬로미



터도 안되는 길을 걷는데 반시간이 넘게 걸렸으나 10여 주가 지나는 동안 건강이 몰라볼 만큼 좋아져 10월 들 어서는 지팡이에 의지해 혼자서 걷게 됐다. 창백하던 얼굴빛도 혈색을 되찾았고 불편한 몸이지만 집안일도 도울 수 있을 만큼 근력이 향상됐다.

지난해 성탄절에 교우들의 축복 속에서 성세를 받는 동안 웬지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내려 주체하기가 힘들었다. 원망과 고통의 사슬에서 풀려나 몸과 마음이 허깨비인 양 가벼워지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슴에 넘쳐 흘렀다. 지난날의 온갖 쓰라린 기억들이 하나하나 머리에 떠올랐으나 그 모든 시련이 이 날의 영광을 위해 있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또한 나이도 나이려니와 원체 치료가 어려운 병인지라 완쾌까지 바라지는 못하지만 심심하다 싶으면 10분 거리인 노인당에 나가 마을 이웃들과 세상 얘기 살아가는 얘기 등을 나누며 지낼 수 있게 된 것만도 얼마나 큰 은총인가. 부인이 아직 건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장녀(21세)와 장남(19세)이 공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돕고 있고 차남 이자 막내(16세)는 올해 공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해 집안 형편이 차츰 나아져가고 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모든 격정 다 잊고 편한 마음으로 살게 된 것이 주님을 모신 덕분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요.”

베드로 형제의 요즘 소망은 나머지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그같은 지향으로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 신광연 취재 -

특수 헤어스타일 ·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 본과 · 연구과 · 피부미용과  
※ 농어촌 극비생, 생활보호대상자, 비전학생 남녀 14세이상  
• 연령 학력 제한없음  
• 6개월(무료 교육) 수료시 취업준비금 50,000원 별도 지급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2-8653

도시 감각의 패션 구두  
브랑누아

김순희(마카엘라)  
전주지점(오거리)  
코이백화점 개점  
☎ 88-5043

사갈 · 성서展

1991. 3. 2 - 3. 7

전북 예술회관

소인 1,000 원  
대인 2,000 원

• 주최 : 전북일보사  
• 주관 : 전주이데아

잡 관 /

“내 탓이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13일 신뢰회복운동의 일환으로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불신이 만연하고 지도자들의 변덕이 죽끓듯하고, 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처음 이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운동이 아무데서나 인간 내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자기 변명의 도구로 이용되는 데 문제가 있다.

얼마 전 나는 어느 관공서에 들어간 일이 있다. 그때 우연히 서류함에 붙어 있던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가 내 눈 안에 들어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캐비닛, 문 할 것 없이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나는 일을 보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몇 가지 물어보는 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관료적인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가 웬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막기 위해 보호색을 띤 벌레 같다는 생각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요즘 수서지구 분양사건을 놓고 관계부처와 고위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거짓말과 발뺌을 보고 자꾸만 보호색을 띤 X×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사순절, 매 미사 때마다 ‘내 탓이오’라고 고백의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적인 회심과 구체적인 행위 없이는 우리(나)도 보호색을 띤 X×같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교 구 소 식

1. 새사제 연수과정(90년,91년도 서품자) : 3월7일(목) 오전10시 가톨릭센터 별관 4층.
  2. 축! 견진 : 3월10일 오전10시30분 금마 성당.
  3. 본당 사회복지 부장·차장 반찬시사회 회장단 연수회 : 3월9일(토) - 10일 천호 피정의 집.
  4. 예비신학생 모임 : 3월10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5.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 4일(월)-교회가 부유하면 안되는 까닭 (정인섭 선생), 6일(수)-사랑의 섬리(최용준 신부), 9일(토)-주의 기도(홍보국).
  6. 원고 모집 : 주제-부활을 맞으면서(신앙체험), 원고 5매 이내, 접수-3월9일까지, 문의-홍보국(85-0041).
  7.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3월4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8. 파타미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3월7일(목) 10시-16시 덕진 성당, 목주, 미사도구, 도시락.
  9. 고산 성당 100주년 기념 성전 신축 일일 찾집 : 3월11일(월) 9시-20시 가톨릭센터 휴게실.
  10. 가톨릭 간호사회 전북지구 피정 : 3월17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간호사들의 많은 참석바람)
  11. 나바위 성당 소개 : 3월3일 오전7시10분 MBC-TV 향토탐방 ‘길’ (강경편).
  12. 전화번호 신설 : 둔율동 성당 보좌신부 43-3247, 신동 성당 수녀원 54-2636.
- ※ 축! 영명 : 4일(성가시미로) 오현택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심소모임** 성령선교수녀회 : 3월10일 오후2시 본원(02)764-4750.  
 경로수녀회(피정) : 3월9일(토) 오후5시-10일 오후5시 본원(0431)56-6697.  
 미리내 천주성삼십직수도회 : 3월10일 10시-16시 서울 본원(02)278-7491.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 - (5)지금은 최대 절약할 때

사순절-보속,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요즘은 유류, 전기 등 각종 에너지를 최대로 아껴야 할 때입니다. 절약과 청빈의 생활로 신자다운 보속의 삶을 살아갑시다.

**축/개업**  
**진선미 웨딩드레스**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웨딩드레스  
 맞춤 판매 대여 부케  
 폐백 의상 연주복 신부착장  
 이리시 목화예식장 옆  
**☎ 52-1187**  
 정기연 (차로로) 황인덕 (마로로)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쿨) 사무소**  
 주택, APT, 상가, 토지, 임야  
 전세, 매매, 알선  
**TEL. (0652) 87-0088**  
 무선 호출기 201-7220  
 (빠빠 소리) + 손님 전화번호  
**☎ 83-0087. 83-0088**

**데레사종합화장품**  
 송희 꽃꽃이 전주지부장  
 꽃꽃이 회원 수시 모집  
 서 데레사(순옥)  
**☎ 83-5319**  
 장소 : 구 성모병원



조립식 원목가구  
 조립식 벽 들

**몬 타 전주 대리점**

- 자유로운 구성, 간단한 해체  
 효율적인 공간 활용  
 책상, 책장, 식탁, 의자,  
 침대, 컴퓨터 테이블,  
 수납장, 장식장, 오피스텔  
 매장, 전시장, 사무실 등

전주시 효자동 놀부쌍얌 옆  
**류 주 리 (안젤라)**  
**류 수 (에밀리오)**  
**☎ 223-6422**

**우리편두**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 성 환 (스키리아)**  
**김 명 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맥주의 참맛을 즐기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신자 환영)  
**☎ 85-8801**  
 (한성여관 사거리)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 **남마다 그날 섬서귀절을 한번더 읽는다.**

1. **부활 판공식사**: 12일-신원리-전9시, 양정리-후3시, 13일-송팔리-전9시, 다리리-후3시, 14일-황윤리-전9시, 신교리-후3시.
  2. **사목회 삼일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병자 봉성체**: 7일 환자가 있는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4. **모임**: 울뜨레아-오늘 후8시, 성심회 성가대 월례회-6일 어머니미사 후, 성시간-7일 후7시30분.
  5. **금주 청소년**: 인후11,12반, 차주 청소년: 인후13·14·15반. 후. 매주일 미사 10분전에 그날 성가 연습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749,010원 □ **교무금**: 875,000원

##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3월은 성요셉 성월**. \* **사순절 신앙강화 제3강의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본당신부 3월5일(화) 저녁7:30분.

1.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구역 분과회**: 5일 오전10시.
  3. **일일회**: 6일 오후6:00.
  4. **성체강복**: 7일 저녁미사 후.
  5. **제대회**: 7일 오전10:30.
  6. **여성분과회**: 9일 오전10시.
  7. **꾸리아**: 10일 오후2시.
  8. **요셉회**·대건회: 10일 공식미사 후.
  9. **청년회**: 10일 저녁미사 후.
  10. **부활대축일 성가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7:30분 기혼자 혼성 합창 단원모집. \* **성당청소**: 9일 이땅의 빛Pr. 밝히오리다Pr.
- **지난주 봉헌금**: 494,450원 □ **교무금**: 871,40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중 석

※ **3월은 성요셉 성월입니다.**

1. **꾸리아**: 공식미사 후.
  2.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3. **성경읽기**: 마태1장10장.
  4. **반미사**: 7일-4구1반.
  5. **가정방문**: 5일-1구1반, 6일-1구3·2반, 7일-1구4·5반, 8일-2구1·2반.
  6. **금주 성당청소**: 바다의 별Pr.
  7.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 박시도 ② 장영미 봉헌-양주태, 이수복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 박귀철 ② 이춘봉 봉헌-양재철, 김대권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35,300원 □ **교무금**: 136,00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사순제3주일 ! 3월은 성요셉 성월 !**

1. **회의**: ① 사목회-3월6일(수) 저녁미사 후 ② 자모회-3월5일(화) 오전10시30분 ③ 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모임**: ① 전례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② 울뜨레아-다음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3. **알림**: ① 헌혈-3월10일 공식미사 후, 장소-서학동 성당(신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② 반모임-3월10일 밤8시 14반, 3월12일(화) 오전10시 4반, 3월15일(금) 오후2시 7반, 3월15일(금) 밤8시 15반.
- **지난주 봉헌금**: 504,650원 □ **교무금**: 414,000원

##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예비자 교리안내**: 주부반-금요일 11시, 학생반-토요일 오후5시, 직장인 반-목요일 오후7시30분.
  2. **신자교리 안내**: 매주 토요일 오후7시30분.
  3. **부활성가 연습**: 매주 금요일 오후8시, 토요일 오전10시.
  4. **꾸리아**: 공식미사 후.
  5. **구역장·반장 모임**: 6일 오전11시(수).
  6. **어린이 교리시작**: 3월9일 3시미사 후(교리서 준비).
  7. **청소년사**: 효자마을, 안행동 구역.
- **지난주 봉헌금**: 402,170원 □ **교무금**: 817,000원

##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1. **재속글라리 협례회**: 오늘 오후1시30분 \* **구역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7시.
2. **성체강복 및 조배**: 7일(목) 오전10시.
3. **병자 영성체**: 3월9일(토).
3. **견진신청**: 사무실 3월1일~31일까지, 준비-견진신청서, 세례증명서(영세본당 발부).
4. **사순절 특강III**: "가톨릭교회의 율법으로부터 해방"(김진석 신부님)-공식미사.
5. **사순절 신학생 후원을 위한 저금통** 아직 받지 못한 분 받아가십시오.
6. **가정방문**: 3월5일-서교2·동교8, 3월6일-동교6·7, 동원5·6, 3월7일-서원1·2.
7. **유아세례**: 9일(토) 오후3시(대부모 미리 정하세요).
8. **자모회**: 다음주 오전10시. \* **금주 모수비 현금액**: 950,000원 \* **현재 모금 총액**: 195,571,882원 \* **금주 신임액**: 없음 \* **현재신임총액**: 242,719,618원 □ **지난주 봉헌금**: 1,578,160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1. **가정방문**: 5일 전4-4,6일 전5-2,7일 5-1,8일 후5-3.
  2. **아버지 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7시.
  3. **성시간 및 성체강복**: 매월 첫 목요일 저녁7시.
  4. **자모회**: 5일 전10시30분.
  5. **성심회**: 6일 후2시 회의실1.
  6. **청년회 임원개편**: 회장-권재혁(스테파노), 부회장-윤재희(테레사), 총무-김하진(미카엘라).
  - \* **구 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 임원 수고 하시겠습니다.**  
회의-매월 넷째주일 후7시.
  7. **회의**: 구역 반회장 연습-오늘 공식미사 후.  
제대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8. **교도소 미사**: 매주 수요일 후1시30분.
  9. **금주 전례**: 강상근 독서·박혜근·김상식 봉헌-김상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26,320원 □ **교무금**: 746,000원

##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중·고생 동계 등반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5. **청소년사**: 3월2일(토)-동정마리아Pr. 3월9일(토)-겸손한 신자의 모후Pr.
6. **금주 전례**: 김용무 독서·봉헌-허정애, 이봉수  
차주 전례: 장병순 독서·봉헌-김혜화, 신정균

##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1. **사순절 성미운동(불우이웃돕기 위해)과 돼지저금통(사제성소 후원 위해) 함께 온 정성을 모읍시다.** 1. 신자가정방문 금주: ① 거성A, 거성국인A ② 우계국 주변1~3반(화·수·목 오후1시30분~5시).
3. **소록도 나환우 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4. **순교자반**: ① 일 10:30 ② 화 10:30 ③ 목 후7시30분(이상은 성인반) ④ 일 후4시 중고생 반(예비자를 위한 반별 인도합니다).
5.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5시.
6. **모임안내**: ① 안나희·구역형제 봉사자회-오늘 11시미사 후 ② 까리다스(성물·서적)-금 오후3시 ③ 울뜨레아-다음주 11시미사 후.
7. **주일학교개학 및 입학 안내**: ① 어린이미사(토) 오후3시(교리-미사후) ② 중·고생 전미사(복전미사, 토 오후5시) ③ 중·고생 교리 및 영(토) 후5시 미사후. ※ 유·초·중·고 학생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주세요.
8. **부활성가 연습**: 게시판 참조.

##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꾸리아**: 공식미사 후.
  3. **제대회**: 7일(목) 10시미사 후.
  4. **성모**·**자모회**: 8일(금) 10시미사 후.
  5. **차주모임**: 울뜨레아.
  6. **판공식사**: 5일(화) 2:00-송정, 롯데1·2, 8:00-우전1, 6일(수) 2:00-현대1·2, 8:00-우전2, 7일(목) 2:00-현대5, 8:00-현대3·4, 8일(금) 2:00-롯데, 8:00-이서.
  7. **지속적인 성체조배 교육**: 5~6일 오전10시, 오후7시-2회. \* **초대장을 기록하여 6일 오후7시30분 성의 착의식때까지 제출비람.** 신축현금 총 신임액: 73,150,000원 봉헌액: 360,000원.
  8. **금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 정계영 ② 정옥순 기도① 안문수 ② 김미숙  
차주 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 박남철 ② 김정혜 기도① 나귀준 ② 박혜숙 □ **2차헌금**: 374,660원
- **지난주 봉헌금**: 816,820원 □ **교무금**: 1,375,000원